http://dx.doi.org/10.20880/kler.2018.53.1.59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 연구

윤호경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수료

* 이 논문은 제64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7. 8. 2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손예희 선생님(계명대학교)과 심사를 통해 논문의 보완을 도와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의한 논문임.

I. 서론
II.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특성
III.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의 목표
IV.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의 내용
V. 결론

I. 서론

어휘 교육은 모든 언어 교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언어 학습은 구사할 수 있는 어휘의 수를 늘려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어휘를 읽고 쓰는 능력은 곧 의사소통 능력의 수준을 말해준다. 어휘는 언어 교육의 대상일 뿐 아니라 기초적인 학습 능력을 형성하는 범교과적인 교육의 대상이고, 학교 교육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일생에 걸쳐 학습되는 평생 교육의 대상이다. 어휘 교육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진다.

국어교육 내에서도 어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어휘력 또는 어휘 능력은 독해력과 국어 사용 능력의 기초를 이루고(박수자, 1998; 주세형, 2005),[1] 이해력, 표현력, 사고력의 기반이 되며(전은주,

1) 박수자(1998: 90)에서는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기능이 바로 어휘력"이라고 보았고, 주세형(2005: 373)에서는 "어휘력은 국어 사용 능력의 '진정한 기초'를" 이룬다고 보았다.

2012: 183),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교육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김소영, 2005: 172). 그러나 어휘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못함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국어교육 내에서 어휘 교육의 위상은 그리 확고하지 못하고(구본관, 2011: 28), 수업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며(손영애, 2000: 54), 학령별, 학교별 위계성이나 계열성이 무시된 채로 이루어진다(김소영, 2005: 172).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휘에 응축된 이념(주세형, 2005) 또는 가치의 문제(박재현, 2006), 어휘사 교육(구본관, 2008; 최소영, 2011), 학교 급별 어휘 교육의 현실과 과제(김창원, 2012; 전은주, 2012)[2] 등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못했던 논의들을 통해서 어휘 교육의 개선안을 모색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어휘 교육과 관련된 여러 쟁점 중에서도 본고에서는 문법교육을 제외한 국어교육의 각 영역에서 영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어휘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휘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것은 국어교육 내에 어휘 교육을 위한 별도의 영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차별화된 어휘 교육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3]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문학은 교육과정에 어휘 교육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으로 평가된다.[4] 그러나 문학교육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익숙한 어휘들의 낯설고 새로운 쓰임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어휘 능력의 향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

2) 전은주(2012)와 김창원(2012)에서는 각기 중학교와 고등학교 어휘 교육을 중심으로 어휘 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3) "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구본관, 2011: 54) 하고, 이러한 교육을 실행할 때 "문법 영역을 벗어나 국어교육 내에서 어휘 교육의 위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전은주, 2012: 191)

4) 손영애(2000: 61)에서는 제6차,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영역에서 어휘 학습과 직결되는 항목은 없다고 보았고, 김창원(2012: 240)에서는 2011년에 고시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고전〉 과목은 어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특성과 목표, 내용을 구상하여 문학교육을 위한 어휘 교육의 구체적인 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현대시는 길이가 짧고 함축성이 높아 개별 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갈래이다. 시어 해석은 단어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면서도, 단어 차원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전반적인 감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현대시 교육에서는 어휘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보다는, 시 텍스트를 풍요롭고 깊이 있게 읽어내는 과정에서 어휘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II.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특성

일상생활에서 어휘는 언어 공동체의 관습과 규범에 기반을 두고 소통의 정확성과 편의성에 기여한다. 어휘 교육 역시 어휘에 대한 양적 · 질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이해 · 표현 능력의 신장을 지향해 왔다. 이에 반해, 시 텍스트에서 어휘는 일상 언어로부터의 일탈과 파격을 인정받으면서 저자의 표현력을 보장하고, 일상의 용례와 규범에 제한되지 않고 작품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의미를 발산해 나간다. 문학적 어휘의 일탈과 파격은 일상적인 소통을 더디게 하는 대신, 풍요로운 정서와 사유를 촉진함으로써 일상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연상, 미묘한 내포적 의미, 어휘적 다의성, 두드러진 은유 등(Carter, 1987/1998: 140) 문학적 어휘가 보이는 다양한 예외적 특성 중에서도 어휘적 다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특성과 목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시 텍스트의 어휘는 1차 의미를 기반으로 다양한 2차 의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상의 어휘와 크게 변별된다. 여러 문학적 표현 중에서도 넓은

의미의 자장을 지닌 시어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상징이다. 상징은 보조관념을 통해 생략된 원관념을 환기하는 표현으로,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일대다 관계를 형성하여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 관계를 무너뜨린다. 상징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환기하고, 가시의 세계를 통해서 불가시의 세계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특정한 의미로 확정될 수 없이 맥락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5] 이와 같은 상징의 특성은 독자로 하여금 단어의 축자적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탐색하게 한다. 상징의 유형으로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등이 있는데,[6] 원형적 상징과 관습적 상징은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반면, 개인적 상징은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렵고 문학 작품에서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다.

일상의 언어생활이 기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서는 상징이 중핵적인 역할을 한다.[7] 기호에 있어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전적으로 자의적이지만, 상징적 기표는 기의와 얼마간 자연적 결합 관계에 있으면서 기의에 대한 직관을 수반한다(김상환, 2003: 495-496). 그러므로 협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기호와 달리, 상징적 기표는 다른 표현으로 대신할 수 없는 고유성과 필연성을 갖는다. 상징이 수반하는 직관을 통해서 독

---

5) 괴테(J. W. von Goethe)는 상징은 특정한 의미로 환원되지 않고 무한한 창조성을 추구한다고 보았으며(임홍배, 2008: 104-105), 에코(U. Eco)는 상징은 공인된 해석체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Eco, 1984/2009: 297). 융(C. G. Jung) 역시 종교적 상징에 대한 이해는 동일한 의미로 고착화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김승철, 2011: 200).

6) 구체적인 상징의 유형은 논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상징의 유형은 비본질적 혹은 자의적 상징, 본질적 혹은 기술적 상징, 통찰 상징(Urban, 1939/1988), 자연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Wheeler, 1966/1988), 관습적 상징, 우발적 상징, 보편적 상징(Fromm, 1951/1988), 개인적 상징, 대중적 상징, 원형적 상징(김준오, 1997), 문화적인 상징, 자연적인 상징, 원형적인 상징, 개인적인 상징(권혁웅, 2010)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7) "기호가 어떤 것을 보이면서 그것 너머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상징도 기호이다. 그렇지만 기호가 모두 상징은 아니다." 상징은 문자 의미 또는 겉뜻을 넘어서 2차 지향을 갖는다(Ricoeur, 1969/2012: 323).

자는 어휘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을 넘어, 어휘에 품긴 정서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예컨대 독자는 박목월의 「下棺」에서 "내렸다", "좌르르", "下直", "열매가 떨어지면", "툭" 등의 시어들로부터 하강이라는 축자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허무함, 적막함, 비통함 등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는 상징이 열어주는 언어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대상의 이미지에 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즉 상상력을(이가림, 1980: 280) 기반으로 한다. 일상의 어휘 능력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정확성을 추구한다면, 시적인 어휘 능력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일상 언어의 정확성에 균열을 일으키고 새로운 결합과 활용을 시도한다.[8] 시적인 어휘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상징을 낳는 힘"(진형준, 2009: 87)으로서 문학의 다의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읽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윤여탁, 1999: 255), 일차적 의미의 영역을 벗어나 상징적 의미, 형상적 의미를 해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손예희, 2012: 106) 정의될 수 있다.

독자는 의미를 섣불리 확정하거나 수렴시키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상징이 지닌 여러 겹의 의미를 사유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특정한 지시대상을 가리킬 뿐인 단어들도 문학 작품에서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 상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래 '무지개'는 공기 중의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줄을 의미하고, 주로 '오색 빛깔' 또는 '일곱 빛깔', '영롱한'처럼 감각적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과 함께 사용된다. 그러나 시어는 대상을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적 화자의 사유와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로 활용되므로, 문학 작품 속의 무지개는 자연물 또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이상의 의미를 내포

8) 비고츠키(L. S. Vygotsky)는 상상력을 재상산적인 상상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구분했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감정, 사고와 연관되며 새로운 이미지를 이전의 이미지와 연결하는 것이다(Vygotsky, 1987; 이윤희, 2013: 133 재인용).

한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는 일상적인 의미로는 성립되지 않는 '강철로 된 무지개'(이육사, 「絶頂」)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강철로 된 무지개'를 해석하기 위해서 독자는 무지개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꿈, 이상, 희망 등의 관습적 의미, 이육사의 무지개만이 지니는 새로운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絶頂」의 시적 화자에게 무지개는 혹한을 견디게 하는 희망이 되지만, 희망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지개는 화사한 총천연색이 아닌 차가운 금속성을 띠고 비정하게 번쩍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적 화자와 같이 강인한 의지를 지닌 사람에게 '강철로 된 무지개'는, 꿈과 이상이 단지 아득하고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강철과도 같이 단단한 실체를 지닌 것임을 말해주는 상징물이 되기도 한다.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이 역설적인 무지개는 결국 극한의 상황에서도 결의를 잃지 않는 시적 화자의 내면 풍경을 보여준다.[9)]

시 텍스트의 상징을 읽으면서 독자는 의미를 쉽게 확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정을 지연시키면서 어휘가 지닐 수 있는 의미를 다층적으로 탐색해 나간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능력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어휘의 지시적 의미, 관습적 의미, 작품만의 새로운 의미 등 다양한 의미의 겹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어휘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발견하면서 어휘에 자신만의 개성과 관점이 담긴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는 작품의 풍요로운 해석과 감상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어휘 교육의 새로운 층위와 범주의 확장을 모색하게 한다.

---

9) 이 작품과 관련해서는 '비극적 황홀'이라는 김종길의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다. 비극적 황홀은 "단순한 도취"가 아니라 "강철과 같은 차가운 비정(非情)과 날카로운 결의를 내포한 황홀"을 의미한다(김종길, 1974: 78).

III.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의 목표

시 텍스트의 상징은 고정된 의미를 지니지 않고 다양한 의미와 맥락에 열려 있으면서 독자의 능동적인 의미 해석을 필요로 한다.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은 의미를 여러 층위에서 탐색하게 함으로써 정서와 사유를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10] 본고에서는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의 목표로 인지적 사고력과 정의적 사고력의 동시적 신장, 익숙한 어휘의 재탐색을 통한 창의력 발달, 문화에 대한 이해력 제고, 자신만의 어휘 사전 구축,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은 인지적 사고력과 정의적 사고력을 동시에 신장시킬 수 있다. 전점이(2007: 336-337)에서는 어휘 교육이 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문학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내면과 연계되는 정서적 어휘 교육에 주목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되, 시 텍스트에서는 정서적 어휘가 아닌 어휘에서도 시적 화자의 정서와 사유가 풍부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추상적인 감정과 관념을 표현하는 상징을 어휘 교육의 대상으로 다룬다. 더욱이 상징은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인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의적 사고력은 물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한 인지적 사고력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은 익숙한 단어들을 낯설고

---

10) 신명선(2011: 71)에 따르면 "어휘 교육 내용 체계화의 노력은 소통성과 문화성, 단어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 역시 인지적 관점과 정의적 관점의 포괄, 문화에 대한 이해력 신장을 지향하지만, 소통성은 오히려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휘를 다양한 방식과 관점으로 감각하고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은 일상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통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다룸으로써 어휘에 대한 재탐색을 요구한다. 김광해(1988: 54-56)에서는 어휘를 1차 어휘와 2차 어휘로 나누면서 '기초 어휘' 또는 '쉬운 말'인 1차 어휘는 가정과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반면, 전문적인 분야에서 쓰이는 2차 어휘는 의도적인 교육 아래에서만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습자가 시 읽기를 어려워하는 것은 단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익숙하게 알고 있던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와는 상이하게 활용되기 때문으로, 시 교육에서는 '쉬운 말'들의 참신한 용례를 탐구하게 한다.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익숙한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사유하는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셋째,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킬 수 있다. 어휘는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상징의 수용과 생산은 곧 그것이 통용되는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하는 일과 직결된다. 이는 저자의 독창적인 사유의 결과물인 개인적 상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그가 터해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자신이 생산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낯설게 여겨지던 독창적인 상징도 널리 회자되고 사용되면서 문화권 내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는 한다.[11]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상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은 학습자가 자신만의 사전

11) 예를 들어 '꽃'에 존재론적인 의미를 부여한 김춘수의 「꽃」은 여러 시인들에 의해 패러디되면서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시인으로는 오규원, 황지우, 장정일, 장경린이 있으며, 이들은 김춘수의 「꽃」이 가진 존재론적 관념성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였다(정끝별, 2017: 99). 패러디 텍스트들이 다양하게 생산되었다는 것은 김춘수의 「꽃」이 제시한 '꽃'의 존재론적인 의미가 공동체 내에서 널리 회자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본래 어휘 교육 연구는 학습자의 '머릿속 사전'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문학교육에서의 어휘 교육 연구는 개인만의 독특한 뜻이 수록되는 '개인의 삶의 사전'(전점이, 2007: 344), 민족의 언어에 새로움, 풍요로움, 생기를 불어 넣는 '민족어 사전'(김정우, 2011: 193) 등 참신한 '개인의 사전'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 왔다.[12] 학습자는 시 텍스트를 통해서 어휘의 낯설고 새로운 용례를 경험하면서 어휘를 이전과는 다르게 사유할 수 있다. 특히 상징은 여러 겹의 의미를 지니면서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어휘에 자신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상징을 읽는 경험의 축적은 머릿속 사전을 개인의 개성과 관점이 반영된 독특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술한 네 가지 목표 중에서도 개인의 사전 구축을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본래 어휘 교육은 학습자가 좋은 머릿속 사전을 가지게 하는 것을 지향하며(구본관, 2011: 47), 상징 교육은 머릿속 사전의 정보를 양적으로 확장하고 질적으로 심화시킬 뿐 아니라[13]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역동적인 발달을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 시 텍스트의 상징을 토대로 구축되는 개인의 사전은 정보의 사실성과 정확성보다는 여러 겹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 관점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에서 형성할 수 있는 사전과 변별된다. 이는 단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및 사고 체계가 유연하게 발달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12) 전점이(2007: 344)에서는 시 수업을 이용한 어휘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서적 어휘에 대해 개인만의 독특한 뜻을 가지게 되고, 이 뜻은 학생 개인의 삶의 사전에 수록된다고 보았다. 김정우(2011)에서는 문학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은 모어 사용자들의 머릿속에 '민족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들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하며, 이 '민족어 사전'은 집단이나 공동체의 사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인의 사전으로서의 성격도 띤다고 보았다.

13) 어휘 교육은 학습자의 머릿속 사전의 정보를 확장하고 이를 심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신명선, 2011: 80).

IV.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의 내용

현대시의 상징은 어휘의 의미를 확장·심화·전복하여 학습자의 언어와 사고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이 장에서는 '꽃'을 다룬 작품들을 중심으로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14] 꽃은 한국의 시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소재로서 일시성, 봄, 아름다움, 수동적인 여성, 영혼 등을 상징하고(이승훈, 2009: 91), 아름다운 빛깔, 향기, 맑은 마음씨와 같은 서정적 표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김주연, 1981: 175). 김현(1991)에서는 꽃의 정적인 이미지에서 분열과 단절을 발견한 시인들의 언어를 높이 평가한 바 있고, 김현자(1997)에서는 한국 문학에 수용된 꽃의 양상을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 명명된 이름, 불과 피와 보석이 되는 이미지의 변용,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로 자신을 확대하는 손짓' 등으로 분석하였다.[15]

본고에서는 머릿속 사전의 체계, 나아가 언어 및 사고 체계의 발달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장, 심화, 전복을 제안하고 이를 꽃을 다룬 시 텍스트들을 통해서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때 확장은 학습자가 여러 작품들을 접하면서 꽃이 지닌 의미의 목록을 늘려나가는 것이고, 심화는 꽃을 유사한 의미로 다루면서도 각기 다르게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서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전복은 꽃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룬 작품들을 통해서 의미를 유연화하는 것이다.[16] 학습자는 여러 작품들에서 꽃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의 층위를

14) 작품의 소재로는 꽃 외에도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징들이 선택될 수 있다.

15) 이 외에도 최동호(2010)에서는 김소월, 이육사 시의 꽃의 이미지에서 상실과 신념을, 서정주 시의 꽃의 이미지에서 인간적 삶의 아픔을 읽어내었고, 이문걸(2003)에서는 김소월, 김춘수, 박두진, 노천명의 시를 통해서 꽃이 시인의 개성에 따라 이별과 만남, 부재와 존재, 현실 극복의 의지, 유년 및 고향 의식 등으로 달리 형상화됨을 살펴보았다.

16) 머릿속 사전을 공간화한다면 확장은 수평축, 심화는 수직축, 전복은 축의 반전에 해당할 것이다.

탐구하고, 의미들 간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머릿속 사전의 내용을 풍성하고 다채롭게 채워나갈 수 있다.[17] 다만 각 단계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단계에서 텍스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1. 의미의 확장 및 다양화

꽃은 흔히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여겨지며 따뜻한 날씨에 피어난다는 점에서 봄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점에서 생산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축하하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꽃을 전하는 것은 꽃의 감각적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일 뿐 아니라 꽃이 함축하는 다양한 긍정적인 의미들을 함께 전하는 일이며, 이와 같은 관행은 꽃이 축원 또는 기원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내포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토대로 시 텍스트의 꽃은 사랑, 희망, 생명 등 다양한 의미로 형상화되면서 의미의 폭을 확장해 나간다. 본고에서는 꽃을 다룬 수많은 시 텍스트 중에서도 우리 문학사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아 온 작품들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서 꽃이 지니는 의미의 폭을 가늠하고자 한다.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인 사랑시로 애송되어 온 김소월의 「진달내꼿」[18]에서 꽃은 시적 화자의 사랑과 헌신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된다. 시적 화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별의 날을 가정하면서 임이 떠나는 길에 진달래꽃을 한 아름 따다 뿌리겠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화사한 외양

17) 확장, 심화, 전복의 단계는 한 편의 작품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꽃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각 단계들을 다른 작품들로 구체화했다.

18) 나보기가 역겨워 / 가실째에는 / 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 寧邊에藥山 / 진달내꼿 / 아름짜다 가실길에 색리우리다 // 가시는거름거름 / 노힌그꼿츨 / 삽분히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나보기가 역겨워 / 가실째에는 /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김소월, 「진달내꼿」(『진달내꼿』, 2015)

과는 달리,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비록 말도 않고 눈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설령 임의 길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임과 이별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은 진달래꽃이 뿌리 내린 땅만큼이나 척박하고 참담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임이 시적 화자를 떠나 진달래꽃이 흩뿌려진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것은 시적 화자가 사랑으로 쌓아올린 축원의 길을 걷는 일이자 시적 화자 또는 그의 마음을 "즈려밟고" 떠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은 진달래꽃의 화사한 분홍빛으로 더욱 애틋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한편 이육사의 「꽃」[20]에서 꽃은 봄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된다. 「꽃」의 시적 화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 차디찬 눈 속에서 봄을 준비하는 꽃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맹아리"를 "옴작어"릴 꽃의 모습은 고난에 처해 있는 시적 화자로 하여금 봄이 되면 까맣게 날아올 제비떼, 꽃으로 만발한 성, 꽃향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게 한다. 이처럼 시적 화자가 눈앞의 참담한 상황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낙관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말리라는, 결코 어긋날 수 없는 '약속'을 꽃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적 화자에게 꽃은 겨울을 견디고 봄을 기다리게 하는 희망의 표지, "새로운 미래의 풍경을 제유적으로 보여주는 상징"(권혁웅, 2001: 219)이 된다. 이육사의 또 다른 작품인 「曠野」에서도 눈이 내리는 가운데 홀로 아득히 퍼지는 '매화 향기'는 시적 화자에게 희망을 일깨우는 감각으로 작용한다.

---

19) 진달래꽃은 영양분이 풍부한 곳에서는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척박한 산지에서 자주 관찰된다(김종원, 2013: 738).

20) 동방은 하늘도 다 끗나고 / 비 한방울 나리잔는 그따에도 / 오히려 꼿츤 밝아케 되지안는가 / 내 목숨을 꾸며 쉬임업는 날이며 // 北쪽「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 눈속 깁히 꼿 맹아리가 옴작어려 / 제비떼 까마케 나라오길 기다리나니 / 마츰내 저버리지못할 約束이며! // 한 바다 복판 용소슴 치는곧 /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꼿城에는 / 나븨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들아 / 오날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이육사, 「꽃」(『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2008)

박두진의 「꽃」[21]에서 개화(開花)의 순간은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은유하며, 꽃은 모든 생명을 대변하는 존재로 상징된다. 작품에서 꽃이 피어나는 순간은 온 우주가 숨죽여 지켜보는 숭고하고 신비로운 것인 동시에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동반하는 것,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하고도 유한한 것으로 묘사된다. 꽃이 "먼 별에서 별에로의 / 길섶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본원적으로 지니는 고독과 정처 없음, 우연성과 외로움을 드러낸다. 꽃은 보드랍고 황홀하며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호수의 복판과도 같아, 함부로 손 댈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지닌다. 이와 같은 꽃의 아름다움은 생명의 신비로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정주의 「菊花옆에서」에서도 국화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 소쩍새, 천둥, 무서리, 시적 화자 등 온 우주가 조응하며, 이 과정에는 '울음'으로 대변되는 고통과 시련이 동반된다.

꽃을 다룬 여러 시 텍스트들을 통해서 학습자는 시 텍스트의 꽃이 사전적인 의미와 일상에서의 용례를 기반으로 하되, 그를 넘어선 다양한 의미로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즉 꽃이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애틋한 사랑이 될 수 있음을, 겨울을 보내는 이에게는 절박한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꽃의 싱그러움이 생명의 탄생을 대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꽃은 위로(조지훈, 「민들레꽃」), 이상과 희망(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신석정, 「꽃덤불」), 삶에 대한 열정(함형수, 「해바라기의 碑銘」), 대체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김춘수, 「꽃」) 등 다양한 의미로 형상화된다. 확장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시 텍스트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과 비교하면서 머릿속 사전의 의미 목록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

---

21) 이는 먼 / 해와 달의 속삭임 / 비밀한 울음 // 한 번만의 어느 날의 / 아픈 피흘림. // 먼 별에서 별에로의 / 길섶 위에 떨궈진 / 다시는 못 돌이킬 / 엇갈림의 핏방울. // 꺼질 듯 / 보드라운 / 황홀한 한 떨기의 / 아름다운 정적 // 펼치면 일렁이는 / 사랑의 / 호심(湖心)아
—박두진, 「꽃」(강창민 외, 2008: 43)

2. 의미의 심화 및 구체화

학습자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꽃의 의미를 다양화하는 한편, 꽃을 유사한 의미로 다룬 작품들을 통해서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다. 즉 꽃의 의미를 자신의 개인적 사전에 추가할 뿐 아니라 꽃을 유사한 의미로 다룬 작품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의미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이육사의 「꽃」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 꽃을 통한 기다림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고, 박두진의 「꽃」과 서정주의 「菊花옆에서」에서 개화로 표현되는 생명 탄생의 의미를 비교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꽃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 중에서도 꽃을 죽음과 관련지은 작품들을 통해서 의미의 심화 및 구체화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꽃은 사랑, 희망, 생명을 상징하는 한편, 꽃의 아름다움은 유한하고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여러 시인들은 꽃에서 죽음의 속성을 발견하고는 했다.

이상의 「絶壁」[22]에서 꽃은 삶을 환기하는 감각이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충동이 도사린다. 작품에서 꽃향기가 만개한 자리는 곧 시적 화자가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려는 자리이고, 시적 화자는 꽃향기가 만개한 곳에 자신의 무덤을 파지만 정작 무덤에 누운 뒤에는 다시금 만개하는 꽃향기를 찾아 나선다. 꽃과 무덤은 삶과 죽음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생에 대한 갈망과 죽음에 대한 충동이 끝없이 갈마드는 과정임을 말해준다. 더욱이 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향기로만 만개하고 무덤은 시적 화자가 스스로 판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된다. 인간이 가장 일상적으로 의존하는 감각, 가장 이성적이고 근대적인

---

22) 꼿이보이지안는다. 꼿이香기롭다. 香氣가滿開한다. 나는거기墓穴을판다. 墓穴도보이지안는다. 보이지안는墓穴속에나는들어안는다. 나는눕는다. 또꼿이香기롭다. 꼿은보이지안는다. 香氣가滿開한다. 나는이저버리고再처거기墓穴을판다. 墓穴은보이지안는다. 보이지안는墓穴로나는꼿을깜빡이저버리고들어간다. 나는정말눕는다. 아아. 꽃이또香기롭다. 보이지도안는꼿이ㅡ보이지도안는꼿이. ㅡ이상, 「絶壁」(『이상전집 1』, 2013)

감각이라 불리는 시각으로는 그 무엇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앎이 근본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서정주의 「꽃」[23]에서는 후손의 쉼터가 되어주는 선인의 흔적이 꽃으로 표현된 바 있다. 작품에서 꽃은 옛사람들의 숨결로 피어난 것으로서 꽃에는 그들의 몸짓과 음성이 남아 있다. 옛사람들의 노랫소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은 꽃이 지상에 피어 있는 동시에 천상에 맞닿아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꽃이 만들어낸 그늘은 크고 넉넉하여 시적 화자와 벗은 '꽃 그늘' 아래에서 땀 흘리지 않고 쉬어갈 수도 있고 샘물로 목을 축일 수도 있다. 휴식을 취하던 시적 화자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옛사람들이 남긴 흔적과 그들의 존재를 상기한다. 이러한 순간은 선인의 넋 또는 정신과의 만남을 의미하며,[24] 지나간 죽음이 오늘의 삶을 살리는 역설을 내포한다. 서정주의 다른 작품인 「密語」에서도 꽃은 "하눌ㅅ가에 머무른 꽃봉오리"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서정주의 시에서 꽃은 "인간 삶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주제인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윤재웅, 2005: 179)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김수영의 여러 작품에서도 꽃은 죽음을 함축하는 소재로 표현된다. 대표적으로 「九羅重花」[25]에 등장하는 글라디올러스는 한 줄기에 여러 송이의

---

23) 가신이들의 헐덕이든 숨결로 / 곱게 곱게 씻기운 꽃이 피였다. // 흐트러진 머리털 그냥 그대로, / 그 몸ㅅ짓 그 음성 그냥 그대로, / 옛사람의 노래는 여기 있어라. // 오— 그 기름묻은 머리ㅅ박 낱낱이 더워 / 땀 흘리고 간 옛사람들의 / 노래ㅅ소리는 하늘우에 있어라. // 쉬여 가자 벗이여 쉬여서 가자 / 여기 새로 핀 크낙한 꽃 그늘에 / 벗이여 우리도 쉬여서 가자 // 맞나는 샘물마닥 목을추기며 / 이끼 낀 바위ㅅ돌에 택을 고이고 / 자칫하면 다시못볼 하눌을 보자. —서정주, 「꽃」(『미당 시전집 1』, 1994)

24) 서정주는 이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 「꽃」이라는 작품은 내 시작생활에 한 전기를 가져온 작품이다. 시집 『화사』 속의 백열한 그리스 신화적 육체나 부엉이 같은 암흑이나 절망이나 그런 것들에서도 인젠 떠나서 죽은 저 너머 선인들의 무형화된 넋의 세계에 접촉하는 한 문을 이 작품의 원상(原想)은 잡아 흔들고 있는 것이다."(서정주, 1994: 135)

25) 저것이야말로 꽃이 아닐 것이다 / 저것이야말로 물도 아닐 것이다 // … // 이것은 누구에

꽃이 피어나는데, 꽃에서 죽음을 발견하는 시적 화자에게 그 모습은 "죽음 우에 죽음 우에 죽음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꽃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기존의 관습과 규범을 무화시키고, 규정할 수 없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이 된다.[26] 이 작품에서 글라디올러스는 물을 먹고 살지만 물로 설명되지 않고, 꽃으로 분류되지만 꽃이라는 상식에 갇히지 않으며 그 존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시야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져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깊은 치욕을 느끼는 시적 화자와 달리 꽃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러한 꽃을 관찰하는 시적 화자는 무한한 환희를 느낀다. 결국 꽃이 죽음을 거듭하리라는 마지막 연의 진술은 죽음이 가져올 단절과 변화가 '자유로운 세계'와 '생기와 신중'이라는 꽃의 존재 조건을 계속해서 가능하게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꽃의 의미를 죽음과 관련짓는 작품들을 통해서 학습자는 꽃의 의미 목록에 '죽음'을 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꽃으로 형상화되는 죽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사는 동안 반복되는 삶과 죽음 사이의 진동, 죽음이 삶을 살리는 역설 또는 죽음이 새로운 세계 탄생의 동력이 되는 역설을 꽃을 통해서 고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소월의 「山有花」는 피고 지는 꽃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담담하게 노래하였고, 신동엽의 「진달래 山川」은 진달래꽃이 흐드러진 풍경을 통해 참혹한 죽음을 부각시켰으

게도 보이지 않을 글이기에 / (아아 그러한 時代가 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 나의 動搖없는 마음으로 / 너를 다시한번 치어다보고 혹은 내려다보면서 無量의 歡喜에 젖는다 // 꽃 꽃 꽃 / 부끄러움을 모르는 꽃들 / 누구의것도 아닌 꽃들 / 너는 늬가 먹고 사는 물의것도 아니며 / 나의것도 아니고 누구의것도 아니기에 / 지금 마음놓고 고즈너기 날개를 펴라 / … // 사실은 벌써 滅하여있을 너의 꽃잎 우에 / 二重의 봉오리를 맺고 날개를 펴고 / 죽음 우에 죽음 우에 죽음을 거듭하리 / 九羅重花 —김수영, 「九羅重花 - 어느 소녀에게 물어보니 너의 이름은 글라지오라스라고」 부분(『김수영 전집 1』, 1981). 이하 김수영의 작품은 모두 『김수영 전집 1』(민음사, 1981)을 참조하였다.

26) "초월적인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듭해야 한다"(오봉옥, 2005: 31).

며, 「山에 언덕에」는 죽은 이의 화신을 꽃으로 표현하였다. 김소월의 「진달내 꼿」에서 길에 흩뿌려진 꽃이 죽음과 관련되어 해석되기도 한다.[27] 학습자는 꽃의 의미 목록에 죽음을 추가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이를 이해하며, 나아가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의미의 전복 및 유연화

독자는 현대시의 상징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심화시킬 뿐 아니라 전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일상세계의 꽃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법이 없지만 시 텍스트의 꽃은 현실의 법칙과 규범, 자연의 이치로부터 자유롭다. 실제의 꽃은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지지만, 시 텍스트의 꽃은 오히려 '열매의 상부'에 피어나 자연의 질서를 전복시킨다.[28] 이처럼 문학 작품에서 꽃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어 왔던 지식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 자유롭게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꽃의 의미들과 불화하기도 한다. 시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자는 꽃이 당연히 내포한다고 생각했던 의미들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고정희의 「현대사 연구 1: 아름다움에 대하여」[29]는 아름다운 꽃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다. 시적 화자는 "아름다운 꽃밭"과 "통과된

---

27) 이영준(2015: 171)에 따르면 "화자가 길바닥에 꽃을 뿌리는 행위는 곧 사랑의 죽음, 혹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다.

28) 꽃이 열매의 上部에 피었을 때 / 너는 줄넘기 作亂을 한다 —김수영, 「孔子의 生活難」 부분

29) 꽃은 누구에게나 아름답습니다 / 호박꽃보다야 장미가 아름답고요 / 감꽃보다야 백목련이 훨씬 더 / 아름답습니다 / 우아하게 어우러진 꽃밭 앞에서 / 누군들 살의를 떠올리겠습니까 / 그러므로 우리들의 적이 숨어 있다면 / 그곳은 아름다운 꽃밭 속일 것입니다 // … / 그러므로 말에도 / 몹쓸 괴질이 숨을 수 있다면 / 그것은 통과된 말들이 모인 글밭일 것입니다 / 〈이것을 깨닫는 데 서른다섯 해가 걸렸다니 원〉 —고정희, 「현대사 연구 1: 아름다움에 대하여」 부분(『고정희 시전집 1』, 2011)

말들이 모인 글밭” 사이에 숨어 있는 “적”과 “괴질”을 경계하고 있다. 꽃밭 앞에 선 사람은 아름다움에 취해 꽃밭을 의심하지 않고, 꽃밭에서는 아무도 “살의”를 떠올리지 않으리라는 낙관은 숨은 적을 들키지 않게 한다. 더욱이 꽃밭은 “호박꽃보다야 장미”, “감꽃보다야 백목련” 같은 취향에 따라 선택된 것이지만, 그러한 취향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강요된다. 꽃밭에 적이 숨었듯, 글밭에도 듣기 좋은 말을 선별하고 잘라내는 주체가 존재한다. 시적 화자는 꽃밭과 글밭의 아름다움이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려는 누군가의 의도로 조성된 것임을 폭로하면서 감각적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것을 촉구한다. 고정희의 다른 작품인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여성사 연구 5」에서도 여성의 고통은 또 다른 꽃밭, 즉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여겨지는 가정에 숨어 있다. 이 작품에서 맞벌이 여성의 고통은 “팬지꽃 아픔”, “안개꽃 멍에”와 같은 ‘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한편 이상의 「꽃나무」[30]에서 꽃은 현실의 불화를 부각시키는 표지가 된다. 「꽃나무」의 ‘꽃나무’는 ‘제가 생각하는 꽃나무’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열심으로’ 꽃을 피웠음에도 꽃나무의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 꽃나무를 흉내 내던 시적 화자는 그러한 실패의 상황으로부터 달아나 버리는데, 그는 꽃나무를 모방하고 있으므로 시적 화자의 도피는 곧 꽃나무의 도피를 전제한다. 이와 같은 두 주체의 도피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더욱 비관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31] 개화는 보통 생산과 결실을 의미하지만 꽃나무가 피워낸 꽃은 보

30) 벌판한복판에 꽃나무하나가잇소 近處에는 꽃나무가하나도업소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를 熱心으로생각하는것처럼 熱心으로꽃을피워가지고섯소. 꽃나무는제가생각하는꽃나무에게갈수업소 나는막달아낫소 한꽃나무를爲하야 그러는것처럼 나는참그런이상스러운숭내를내엿소. —이상, 「꽃나무」(『이상전집 1』, 2013)

31) “나는막달아났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구절을 두고 함돈균(2010: 458)에서는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러한 욕망의 충족은 가능하지 않다는 아이러니적 인식의 시적 표현이라고 하였고, 박수연(2001: 288)에서는 꽃을 피우는 것이 곧 꽃나무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려는 행위라고 보았다. 한편 황현산(1999: 267)에서는 이 구절이 “관념 속으로의 도피가 마치 현실에서의 실천인 것처럼 가장하였

람이 아닌 좌절을 가져다주고, 꽃나무가 뿌리 내린 "벌판"을 희망 없는 불모의 땅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있고(박수연, 2001: 285), 꽃나무는 세계의 불화를 표상하면서 시인에게 강박을 가하는(김주연, 1981: 177) 역할을 한다. 더욱이 꽃이 꽃나무로서는 최선을 다해 피워낸 것이라는 사실은 꽃나무 또는 시적 화자의 실패를 더욱 뼈아프고 절망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김수영의 「꽃잎(二)」[32]에서 꽃은 언어화되지 않고, 설명되거나 규정되지 않는 사건을 표상한다. 작품에서 꽃을 주고받는 행위는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도래하게 하는 일종의 '사건'이다. 사건은 변화를 불러오고, 기성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낡은 언어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꽃은 글자에 비유되면서도 온전한 글자가 아닌 "못 보는 글자", "떨리는 글자"로 표현되고, 일상의 소통을 방해하는 "소음"으로 형상화된다. "영원히 떨리면서 빼먹은" 꽃잎은 온전히 파악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기 싫은'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설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언어로 환원되거나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낡은 세계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세계를 태어나게 하는 '사건'을 시인은 꽃을 통해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의미를 전복하는 텍스트들은 일상의 상식을 반전시킴으로써 말하고자

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한 바 있다.

32) 꽃을 주세요 우리의 苦惱를 위해서 / 꽃을 주세요 뜻밖의 일을 위해서 / 꽃을 주세요 아까와는 다른 時間을 위해서 // 노란 꽃을 주세요 금이 간 꽃을 / 노란 꽃을 주세요 하얘져가는 꽃을 / 노란 꽃을 주세요 넓어져가는 소란을 // 노란 꽃을 받으세요 원수를 지우기 위해서 / 노란 꽃을 받으세요 우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 노란 꽃을 받으세요 거룩한 偶然을 위해서 // 꽃을 찾기 전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 꽃의 글자가 비뚤어지지 않게 / 꽃을 찾기 전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 꽃의 소음이 바로 들어오게 / 꽃을 찾기 전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 꽃의 글자가 다시 비뚤어지게 // 내 말을 믿으세요 노란 꽃을 / 못 보는 글자를 믿으세요 노란 꽃을 / 떨리는 글자를 믿으세요 노란 꽃을 / 영원히 떨리면서 빼먹은 모든 꽃잎을 믿으세요 / 보기싫은 노란 꽃을 —김수영, 「꽃잎(二)」

하는 바를 더욱 강렬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학습자는 꽃에 대해 지니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꽃이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편을 가장한 채 특정 세력을 위해 복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꽃의 아름다움이 현실의 불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다한 긍정적인 상징으로 언어화되어 왔던 꽃이 도무지 언어화될 수 없는 사건 그 자체를 가리킴으로써 '이것의 상징은 무엇' 식의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앎을 완성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낯설고 새로운 앎에 항상 열린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상징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기반으로 접근할 때,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머릿속 사전의 정보를 확장 · 심화 · 전복하는 상징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설계하였다. 다만 각 단계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들은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동일한 텍스트를 저마다 다른 단계에서 수용할 수 있다. 해석에 따라 꽃의 의미는 기존의 의미 목록에 추가될 수도,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도, 기존의 앎을 반전시키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33] 또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상징에 대한 앎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학습자는 이를 심화 및 전복 단계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습자는 확장 단계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작품에 대한 해석에 따라 텍스트를 수용하면서 개인의 사전을 자신만의 개성과 관점을 지닌 고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3) 예를 들어 김수영의 「꽃잎(二)」에서 '꽃'은 언어화되지 않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죽음 또는 시(詩)로 해석될 수도 있다.

V. 결론

문학 작품은 다른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어휘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용례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문학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도 상징은 어휘의 단위로 활용되면서 하나의 보조관념으로 다양한 원관념을 환기하고, 구체적인 대상으로 추상적인 관념과 정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여러 겹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고, 이러한 어휘 교육 아래 학습자는 인지적 사고력과 정의적 사고력의 동시적 신장, 익숙한 어휘의 재탐색을 통한 창의력 발달, 문화에 대한 이해력 제고, 개인의 사전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

학습자는 사전적 지식과 백과사전의 정보,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어휘에 대해 각기 다른 경험과 지식을 쌓아 나간다. 그 중에서도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은 어휘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개성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어떤 문학 작품을 읽었느냐에 따라 동일한 어휘에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설령 같은 작품을 읽었을지라도 어휘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의성을 전제하는 상징의 수용과 생산은 독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계기가 된다. 시 텍스트의 상징을 읽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독자는 개인의 사전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을 늘려나갈 수 있다.

개인의 사전에 수록된 어휘들은 독자의 개성과 관점을 통해 주관화되어, 정서와 사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시 텍스트에 제시된 꽃의 모습은 실제의 꽃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 저자가 꽃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변형할 수도, 독자가 작품에 묘사된 꽃을 상상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 또는 독자가 상상한 꽃의 모습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서 작품이 전달하는 감동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열매의 상부에 피어난 꽃은 그 반란성을 사유하게 하고, 독자가 실제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상상한 모란은 시적 화자의 기다림을 더욱 간절하게 느끼게 한다. 이처럼 주관화된 어휘들은 고유한 의미를 바탕으로 독특한 감흥을 불러일으켜, 학습자의 정서와 사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어휘 교육에 대한 관심은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김창원, 2012: 230), 특히 문학 영역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 어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문학적 표현과 관련된 내용 역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문학적 표현은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상징을 고정된 관습적 지식이 아닌 다양한 의미의 층위를 지닌 개념으로 온전히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고등 수준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현대시의 상징 교육은 시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어휘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사유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 및 사고 체계의 정련 및 세련에 있어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8. 1. 31. 투고되었으며, 2018. 2. 8. 심사가 시작되어 2018. 3.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강창민 외(2008), 『혜산 박두진 시 읽기』, 서울: 박이정.

고정희(2011), 『고정희 시전집 1』, 서울: 또하나의문화.

구본관(2008),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1, 77-127.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27-59.

권혁웅(2001), 「현재 속에 내포된 미래, 이육사의 〈꽃〉에 나타난 우리 시의 새로운 시제」, 『시의 아포리아를 넘어서』, 서울: 이룸.

권혁웅(2010), 『시론』, 파주: 문학동네.

김광해(1988), 「이차 어휘의 교육에 대하여」, 『선청어문』 17, 50-63.

김상환(2003), 「상징과 철학」, 『철학사상』, 16, 480-511.

김소영(2005), 「고등학교 국어과 어휘 지도 방안」, 『우리말연구』 17, 171-191.

김소월(2015), 『진달내꼿』, 서울: 소와다리.

김수영(1981), 『김수영 전집 1』, 서울: 민음사.

김승철(2011), 「융, 상징적/직관적 상징이해, 그리고 종교간의 대화」, 『심성연구』, 26, 189-208.

김정우(2011), 「문학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185-215.

김종길(1974), 「육사의 시」, 『나라사랑』 16, 70-80.

김종원(2013), 『한국 식물 생태 보감 1』, 서울: 자연과생태.

김주연(1981), 「이상의 〈꽃나무〉: 안주와 탈주」, 김용직·박철희(편), 『한국 현대시 작품론』, 서울: 문장.

김준오(1997), 『시론(제4판)』, 서울: 삼지원.

김창원(2012), 「고등학교 어휘교육의 위상과 어휘교육론의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44, 229-259.

김 현(1991), 「꽃의 이미지 분석」, 『상상력과 인간/시인을 찾아서』,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현자(1997),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꽃과 새의 시적 변용」,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서울: 문학과지성사.

박수연(2001), 「이상의 〈꽃나무〉」, 신용협, 『현대 대표시 연구』, 서울: 새미.

박수자(1998), 「사고, 지식, 어휘의 교육적 함의」, 『국어교육학연구』 8(1), 83-104.

박재현(2006), 「어휘 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한 어휘어미의 가치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74, 5-24.

박현수(2008), 『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 서울: 예옥.

서정주(1994), 『서정주 전집 1: 미당 시전집 1』, 서울: 민음사.

서정주(1994), 『서정주 전집 5: 미당 자서전 2』, 서울: 민음사.

손영애(2000), 「국어과 어휘 지도의 내용 및 방법」, 『국어교육』 103, 53-78.

손예희(2012), 「독자의 위치에 따른 상상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새국어교육』 90, 87-112.

신명선(2011),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61-101.

오봉옥(2005), 『김수영을 읽는다』,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윤여탁(1999),「문학교육에 상상력의 역할: 시의 표현과 이해 과정을 중심으로」,『문학교육학』 3, 241-260.
윤재웅(2005),「서정주 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문제: 꽃의 상상력을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177-203.
이가림(1980),「바슐라르 사상의 넓이와 깊이: 물질적 상상력의 혁명」, Bachelard, G.,『물과 꿈: 물질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 이가림(역), 문예출판사(원서 출판 1979).
이문걸(2003),「현대시에 나타난 꽃의 심상 미학」,『새얼어문논집』 15, 23-46.
이 상(2013),『이상전집 1』, 파주: 태학사.
이승훈(편)(2009),『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서울: 푸른사상사.
이영준(2015),「꽃의 시학: 김수영 시에 나타난 꽃 이미지와 '언어의 주권'」,『국제어문』 64, 155-191.
이윤희(2013),「장소를 매개로 한 상상력과 내레이션: 다큐멘터리 영화 〈Saroyanland〉를 중심으로」,『영상문화』 23, 117-151.
임홍배(2008),「괴테의 상징과 알레고리 개념에 대하여: 총체성과 감각적 구체성의 변증법」.『비교문학』 45, 95-114.
전은주(2012),「중학교 어휘 교육의 위상과 개선 방안」,『새국어교육』 93, 181-213.
전점이(2007),「문학 작품을 활용한 어휘 교육」,『새국어교육』 77, 325-347.
정끝별(2017),『패러디』, 전주: 모악.
주세형(2005),「국어과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독서연구』 14, 373-399.
진형준(2009),『싫증주의 시대의 힘 상상력』, 파주: 살림출판사.
최동호(2010),「꽃, 그 시적 형상의 구조와 미학」,『한국현대시와 물의 상상력: 한국 현대시의 의식현상학적 연구』, 서울: 서정시학.
최소영(2011),「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 교육 연구」,『국어교육연구』 28, 113-144.
함돈균(2010),「이상 시의 아이러니에 나타난 환상의 실패와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에 관한 소고: 정신분석의 관점으로 읽은 〈꽃나무〉, 〈절벽(絶壁)〉, 〈공복(空腹)〉에 대한 주석」,『우리어문연구』 37, 443-481.
황현산(1999),「모국어와 시간의 깊이」, 유종호 외,『현대 한국문학 100년』, 서울: 민음사.
Carter, R. (1998),『어휘론의 이론과 응용』, 서울: 한국문화사(원서출판 1987).
Eco, U. (2009),『기호와 언어철학』, 김성도(역), 파주: 열린책들(원서출판 1984).
Fromm, E. (1988),「상징언어의 본질」, 류철균(역), 김용직(편),『상징』, 서울: 문학과지성사(원서출판 1951).
Ricoeur, P. (2012),『해석의 갈등』, 양명수(역), 파주: 한길사(원서출판 1969).
Urban, W. M. (1988),「상징 체계의 일반 이론」, 한기욱(역), 김용직(편),『상징』, 서울: 문학과지성사(원서출판 1939).
Wheeler, C. B. (1988),「상징의 이론과 실제」, 강성복·임경택·박종각(역), 김용직(편),『상징』. 서울: 문학과지성사(원서출판 1966).

초록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 연구

윤호경

이 논문은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특성, 목표, 내용을 제안하였다.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대상으로는 여러 겹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추상적인 관념과 정서를 표현하는 상징을 다루었으며, 현대시 교육에서의 어휘 능력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지시적 의미, 관습적 의미, 작품만의 새로운 의미 등 다양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현대시의 상징 교육을 통한 어휘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는 인지적 사고력과 정의적 사고력의 동시적 신장, 익숙한 어휘의 재탐색을 통한 창의력 발달, 문화에 대한 이해력 제고, 개인의 어휘 사전 구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인의 사전은 어휘의 의미를 확장, 심화, 전복하는 현대시의 상징을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다채롭게 채워나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꽃을 소재로 한 시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의미의 확장, 심화, 전복의 양상을 구체화하였다.

핵심어 현대시 교육, 어휘 교육, 어휘 능력, 상징, 개인의 어휘 사전

ABSTRACT

Vocabulary Education Based on Learning Poetic Symbols

Yun Hogyeong

This thesis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objectives, and contents of vocabulary education in poetry education. Poetic symbols could be a suitable target because they involve various meanings and express abstract ideas through specific objects. This paper proposes a creative imagination as a specific lexical competence for poetry education because it can help learners understand various meanings of symbols.

Vocabulary education based on learning poetic symbols can help learners increase cognitive and affective thinking and reflect their knowledge of everyday words. It can also help them understand cultures and prepare a personal language dictionary. This paper set three learning stages focusing on poetry dealing with “flowers” for understanding poetic symbols and developing a system of language and thinking.

KEYWORDS Poetry Education, Vocabulary Education, Lexical Competence, Symbol, Personal Language Dictionary